

린 노티지의 극에 나타난 코스모폴리타니즘 철학:
Intimate Apparel, Las Meninas,
*Fabulation, Ruined, Sweat*을 중심으로*

전 연 희
성신여자대학교

I. 서론

흑인여성극작가인 린 노티지의 극은 이전 세대의 흑인작가들이 집중해온 “미국 흑인 문학이란 무엇인가?”(What is an African American Literature?)라는 대명제에 대해 혁신성과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다. 노티지는 지금까지 미국사회의 다양성의 이론적 토대가 되어온 다문화주의가 외적인 모양과 컬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다문화 사회 속에 내재해 온 인종주의 ‘이후’(post)의 ‘포스트 인종주의’ 사회를 표방한다. 이는 인종주의나 국가주의의 환상에 제한 받지 않는 순수한 인류애를 바탕으로 한 세계 시민주의 윤리학과 책임의식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전의 흑인 연극과 차별화된 의식의 확장을 작품 속에 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티지는 그동안 흑인 여성 작가들에게 내재되었던 의식적/무의식적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A2A01038453).

중압감인 인종적 이슈의 한계를 뛰어넘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제국주의, 민족주의, 다문화주의의 제한된 영토를 뛰어넘는 코스모폴리타니즘(cosmopolitanism)적 담론을 극에 반영하고 있는 작가로 인식된다. 제레미 월드론(Jeremy Waldron)이 언급한 바와 같이 자신만의 전통, 언어 그리고 문화의 특수성에 국한되지 않고 열린 사고를 가장 중요한 강령으로 삼는 코스모폴리탄적 잣대(Waldron 164)에서 볼 때 노티지는 국가주의, 민족주의, 다문화주의 및 세계를 보편적 획일화의 잣대로 구분하는 세계화를 넘어선 코스모폴리타니즘적 사고를 극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작가로 볼 수 있다.

노티지의 극에 관한 비평적 검토는 공연 리뷰가 주를 이루었으나 국내에서는 본 연구자의 「영토, 젠더(gender) 그리고 몸의 정치학: 린 노티지의 *Ruined*」, 최석훈의 「비체를 통해 드러난 전쟁과 폭력의 허구」, 강형민의 「린 노티지의 *Ruined*에 나타난 탈 식민적 폭력」, 그리고 최성희의 「세계화의 여성주의적 전유: 린 노티지의 『폐허』가 발표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우화』(*Fabulation*), 『속옷』(*Intimate Apparel*)을 비롯한 노티지의 대표작에 관한 연구는 해외에서는 공연 비평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 연구는 아직 미미한 편이다. 노티지의 최신작 『땀』(*Sweat*)은 국가주의나 글로벌화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으며 풀리처상 수상이후 브로드웨이 무대에서 공연의 기회를 갖게 되면서 흑인 여성 연극의 대중화와 입지를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해외 연구로는 엘킨 모호러(Elkin Mohler), 크리스티나 맥마혼(Christina McMahon), 그리고 데이빗 로만(David Roman)의 공저인 “펜실베이니아 레딩에 대한 세 가지 읽기: 노티지의 『땀』과 더글러스 카터 비니의 『시대를 향한 쇼』를 중심으로”(Three Readings of Reading, Pennsylvania: Approaching Lynn Nottage’s *Sweat* and Douglas Carter Beane’s *Shows for Days*)가 대표적 비평이다. 『폐허』(*Ruined*)에 관한 논의는 무대화의 과정에서 나타난 극적 미학을 중심으로 여성간의 유대와 정체성의 표현방식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대표적인 논문으로는 레베카 애쉬워쓰와 날리니 모하바르(Rebecca Ashworth and Nalini Mohabir)의 “『폐허』: 스펙타클에서 연기로”(Ruined: From Spectacle to Action, 2010)가 있으며 무대

공연과 관객성에 관한 논의를 주로 다룬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발표한 노티지에 관한 연구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대표작 『속웃』, 『궁녀들』(*Las Meninas*), 『폐허』, 『우화』, 그리고 『땀』에 반영된 코스모폴리타니즘 철학과 강령들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칸트가 제기한 코스모폴리타니즘의 의미와 특성을 살펴보고 그중 핵심적 강령이라 할 수 있는 ‘세계 시민권’(world citizenship), ‘커뮤니티(community)의 당위적 존속성’, 그리고 그 속에서 나타나는 ‘서벌탄적’(subaltern)권리와 특성들이 극중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극화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동시에 이 같은 코스모폴리타니즘적 명제와 맞물려 나타나는 극적 공간과 시간의 다양한 스펙트럼이 보여주는 ‘유연성’(flexibility), ‘다양성’(diversity), 그리고 “포용성/관용”의 전략도 논의하게 될 것이며 이 같은 논의는 지금까지 노티지 극에 관한 연구와 차별화 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II. 코스모폴리타니즘 윤리학과 세계 시민권(World Citizenship): 『폐허』

다문화주의와 세계화의 소용돌이 속에 ‘국가주의’(nationalism)가 다시 도래하는 현 시대는 확실성보다는 ‘가변성’(mutability)이 지배하는 사회이다. 이 같은 ‘변화’(transformation)의 시대이자 이동하는 ‘전이’(transition)의 시대에 요구되는 것은 구성원들을 포용하는 코스모폴리타니즘적 가치이다. 이 시대의 담론으로 재등장한 코스모폴리타니즘은 국가나 사회공동체를 위협하는 요소들인 세계화의 부작용과 민족주의의 배타적 경계를 우려하며 동시에 다문화주의의 제약을 넘어서고자 하는 시대적 고민을 담은 대안적 담론이라 할 수 있다. 코스모폴리타니즘의 계보학은 스토익(Stoic)철학으로 거슬러 올라가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에 까지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론적 개념과 성격이 명확하지 않아 “코스모폴리타니즘을 정의하는 것 자체가 코스모폴리탄적이지 않다”(specify cosmopolitanism [. . .] is an uncosmopolitan thing to do, bhabha 4)는 주장도 존재한다.

칸트는 이미 18세기에 미래 사회와 코스모폴리타니즘의 중요성을 인식한 철학자로 코스포폴리타니즘의 정의와 실천에 관한 그의 이론들은 세계화, 민족주의, 그리고 다문화주의의 문제점과 위기 속에서 대안적 담론으로 부상한다. 코스모폴리타니즘의 어원은 로마의 스토이시즘(Stoicism), 즉 스토익철학의 강령 중 하나인 “세계 시민”(kosmou polites, Nussbaum 29)에서 유래하였으며 이는 칸트의 코스모폴리타니즘의 핵심 키워드가 된다. 로마시대의 스토익 철학의 대표적 사상가인 디오지니 더 씨닉(Diogenes the Cynic)이 선언한 “난 세계의 시민이다”(I am a citizen of the world, Nussbaum 29 재인용)라는 문장은 인간은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반드시 하나의 공동체에 속하며 이로부터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는 의미 있는 선언이라고 누스바움(Nussbaum)은 강조한다. 그는 이를 ‘가변성’, ‘혼종성’(hybridity) 그리고 ‘유동성’(fluidity)을 내포하는 코스모폴리타니즘의 특성을 함축적으로 요약하는 선언으로 규정한다. 스토익 철학에서는 모든 인간은 성, 인종과 계층에 관계없이 도덕적 가치를 지니며 이성의 고귀함을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남성이나 여성, 노예나 자유자나, 왕이나 농민이나 모두 무한한 도덕적 가치를 지니며 이성의 숭고함은 그 어느 곳에서도 존중받아야 한다”(Male or female, slave or free, king or peasant all are of boundless moral value, and the dignity of reason is worthy of respect wherever it is found, Nussbaum 30)고 강조한다. 이는 편협한 국가주의나 지역성을 위협하는 세계화에 대한 선입견에서 벗어나 현재의 인식에 근거한 ‘보편성’을 강조하는 것이며 전통적인 ‘장소’(locus)의 의미를 해체하는 시/공을 초월한 인식을 제공한다. 미래사회를 전망하는 코스모폴리타니즘 사상의 핵심은 ‘이념’(idea)이 아닌 인간 ‘존재’(being)에 관심을 가지며 동시에 모든 인간은 세계라는 공화국의 잠재적인 참여자라는 것이다. 1948년 12월 UN에서 채택된 ‘세계 인권 선언’은 전 세계인이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는 중요한 초석을 제공하게 된다. 이로 인해 국제 인권 단체들이 설립되기 시작하였으며 인간성을 중시하는 코스모폴리타니즘적 기준이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게 된다. 이 인권선언문의 제 29조는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진다. 어떤 사람이든 그러한 공동체를 통해서

만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고 온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명시하며 인간과 공동체와의 관계의 중요성을 제안하였다(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 이 선언은 지역 공동체의 의미를 글로벌 시민 사회의 기준으로 숙고하며 정의의 기준을 국제적 기준에서 코스모폴리탄적 개념으로 재조명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노티지의 극작 세계는 이 같은 코스모폴리타니즘 철학에 근거하는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경계를 포괄하는 매크로코스름(macrocosm)의 세계로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인물들, 다양한 커뮤니티의 역동적이고 변화하는 특성 그리고 이 같은 조합을 포용하는 관용의 전략들을 수용한다. 『폐허』는 세계 시민권을 지닌 인간 개개인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려는 노티지의 노력의 산물로 이는 칸트가 주창한 “상호작용”(Verkehr, Kleingeld, *Kantian Review* 2 75)이론¹⁾을 적용할 수 있는 대표적 작품이다. 이 작품은 인간 존재와 권리의 가치를 주장하는 노티지의 관심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글로벌한 의미에서 정의와 인간이라는 화두에 주목하게 한다. 『폐허』는 국가나 인종 중심주의의 경계를 초월하여 세계의 시민으로서 인간의 권리를 중시하는 코스모폴리탄적 윤리학을 다룬다. 세계의 분쟁지역을 부지런히 오가며 방대한 연구를 통해 이루어진 그녀의 극작은 정치와 사회문제뿐 아니라 심리적, 성적, 인종적 이슈를 포괄하며 기존의 극적 주제와 방식을 넘어서는 유연성을 보여준다. 인권단체인 국제 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노티지는 소외된 지역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국제기구의 한계를 깨닫게

1) “Verkehr”는 독일어로 상호작용(interaction)이라는 의미이며 이는 경계를 가로지르는 상호교류라는 코스모폴리탄적 권리와 관련이 되어있다. 이 용어는 상업적 거래, 여행, 이주(migration), 또는 지적인 교류를 포괄하는 모든 상호교류와 연관되는 용어로 칸트는 이 용어를 “사회적 교류(social interaction)” 또는 “공동체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언급할 때 사용하였다. 칸트는 그의 저서 『영원한 평화를 향하여』(*Toward Perpetual Peace*)에서 지구상의 “Gemeinschaft”(community)는 한 지역에서 발생한 권리의 침해 행위가 전 지역에서 느껴질 정도로 진화했다고 언급한다. 클렌젤드는 칸트가 언급하는 공동체는 권리와 관심의 공동체라고 주장한다(Kleingeld, *Kantian Review* 2 76).

되며 역설적으로 이 같은 경험을 통해 소외된 지역에 대한 관심과 극적 동기를 부여받는다.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전소식을 접하게 된 노티지는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극이 세계시민의 일원으로 자신이 관심을 가져온 극적 소재에 적합하다는 것을 직감하고 전쟁 지역으로 달려간다. 콩고에 직접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그녀는 주변국가인 우간다에서 피난 온 콩고지역의 여성들과 인터뷰를 하게 되며 그들로 부터 전쟁의 참상을 듣게 된다. 그녀는 많은 여성들이 자국의 남성들이 자행한 강간으로 인해 몸뿐 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망가졌으며 그들을 가해한 남성들 역시 폭력의 희생물로 또 다른 폭력을 자행하는 악순환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인터뷰 현장에서 전쟁에 대한 다면적 시각을 접한 노티지는 결국 전쟁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모호한 채 인간의 권리를 상실하게 만들며 이는 “정의 혹은 권리의 개념”(Hegel 8)과 연관해서 생각해야 하는 문제임을 깨닫는다.

『폐허』는 내전 중 폭력과 강간으로 희생당한 아프리카 여성들의 비극적 삶의 고통뿐 아니라 강인함과 희망의 요소까지 전달하며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삶의 의미는 예술적인 시각으로 승화된다 (전연희 f 181 재인용). 이를 통해 노티지는 콩고의 “망가진”(ruined) 여성들이 세계시민으로서 누려야 마땅한 인류애적 권리에서 배제되어 있음을 전 세계에 알리고 관심을 촉구하는 연극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연극적 기능의 수행은 미국 내 정계의 많은 관심을 이끌어 냈으며 U.N에서는 공연 이후 콩고 민주공화국의 인권뿐 아니라 아프리카 전반에 자행되고 있는 여성강간의 문제를 심각한 의제로 다루기 시작했다. 극의 연출가이자 공동작업자인 케이트 호리스키(Kate Whoriskey)는 노티지와 자신의 작업을 하나의 사회적인 논평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며 이 작품의 핵심적 가치는 인간의 복잡다단한 스펙트럼을 검사하고 찬양하는 것이라고 언급한다 (Ruined xii). 콩고를 향한 코스모폴리탄적 관심에서 비롯된 『폐허』의 극적 전경화는 세계 정의에 기반을 둔 코스모폴리탄적 가치와 헤겔이 보여준 글로벌 시대의 ‘국제적 윤리학’(international ethic, Buchwalter 9)과 연관된 행보이며 초국가

적 이해를 전제로 한다.

『폐허』에서 노티지는 정부군과 반군간의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인명이 살상 당하고 특히 여성들에 대한 강간이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곳에 초국가적 ‘치외 법권’ 지역을 설정한다. 사실상 이 지역은 정부군과 반군이 서로 대립하는 정치적 위험성을 내포한 장소이며 국가적 정체성이 혼돈상태에 있는 곳이다. 그러나 이 같은 불안정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공간을 어떠한 외부의 규칙도 허용하지 않는 독립적인 공간으로 지켜나가려는 여성들의 의지와 노력을 부각시킨다. 『폐허』에서의 공간은 외적 이데올로기적 한계를 벗어나 독립적인 규칙을 설정하고 정체성을 선언하는 곳이며 여성들의 영토수호의 의지를 담고 있는 곳이자 사회적 관계성의 확장을 통한 세계시민의식이 선포되는 장소이기도 하다. 극은 코스모폴리탄적 복합성을 반영하는 가운데 치유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미래를 향한 비전과 희망을 노래한다. 노티지의 코스모폴리탄 미학은 “불경스러운 신성함, 치명적인 초월성, 아름다움을 지닌 약점, 그리고 관용을 가진 이기심” (the sacred with the profane, the transcendent with the lethal, the flaws with the beauty, and selfishness with generosity, *Ruined* xiii)과 같은 역설의 미학이 상호 교차하는 스펙트럼을 보여주며 헤겔의 정반합의 미학을 실천한다. 마마 나디(Mama Nadi)라는 한 여성의 용기 있는 희생으로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희망을 노래 할 수 있게 된다. 그녀의 노력은 여성들의 육체에 가해진 불경스러움을 극복하고 남성적 질서 이전의 신성한 본래의 여성성을 회복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여성들은 망가진 몸으로 인해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축출 당했지만 마마 나디의 헌신적 돌봄으로 자신들의 몸에 가해진 치명적인 결함을 딛고 일어서며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초월성을 보여준다. 코스모폴리탄적 공동체의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마마의 지도력은 친절과 관용을 통해 여성들의 공동체를 견고하게 하며 내면적 가치를 강화한다. 그녀는 몸과 마음이 망가진 채 공동체에서도 배제된 여성들의 회복을 통해 인간이 지녀야 할 “코스모폴리탄적 권리”(Welrbürgerrecht)²⁾를 강조한다. 노티

2) 저서 『영원한 평화를 향하여』에서 칸트는 헌법적 권리와 국제적 권리를 강조한데 이어 “코스모폴리탄적 권리”(cosmopolitan right)를 언급하며 이방인에 대한 국가

지는 마마 나디를 통해 세계시민으로서 공동체의 일원이 나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실현함으로 “나는 세계의 시민이다”라는 코스모폴리타니즘의 기원적 선언에 동참한다.

III. 세계 시민사회와 커뮤니티(Gemeinschaft)의 당위적 존속성:

『우화』, 『땀』

칸트는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은 다양한 하나의 공동체에 속한다고 언급하며 코스모폴리타스(kosmou polites), 즉 ‘세계시민’의 의미를 규정한 스토익학파의 이론을 재해석한다. 그는 인간 공동체는 세계 시민사회인 ‘코스모폴리스’(cosmopolice) 공동체로 규정되며 이에 속한 인간은 국가와 개인 간의 상호소통을 요청할 권리를 지니고 있다고 언급한다(Kleingeld 73 재인용). 칸트는 공동체의 일원은 환대 받을 권리를 지니며 동시에 거절할 자유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간의 능력은 “시민의 공적 권리와 정의의 사회적 조건”(social condition of civil public right and justice, Brown 52 재인용) 안에서 발전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공동체에 속한 인간은 ‘도덕적 행위자’(moral agents)로 범질서를 중요하게 여기며 공동체내에서 일어나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예민하게 느껴야 한다고 주장한다(Nussbaum 33). 또한 코스모폴리타적 강령의 하나인 ‘이성’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이성에 근거한 모든 공동체는 현실과 양심을 아우르는 법을 지켜야 하며 코스모폴리스로 명명된 공동체는 구성원들의 의무와 주장을 수용할 수 있는 암묵적인 구조를 지닌다고 언급한다(Kleingeld, *Kantian Review* 2 75).

스토익 학파의 주장에 따르면 세계시민 공동체는 인간이 태어나면서 속하게 되는 ‘지역 공동체’(local community)와 인간의 주장과 열망에 의해 소속되는 공동체(community of human argument and aspiration)로 분류된다(Nussbaum 156).

의 의무와 권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에 대한 개인과 단체의 의무와 권리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Kleingeld, *Kantian Review* 2 73).

『우화』는 코스모폴리탄적 커뮤니티에 나타난 ‘도덕성’의 문제를 화두로 삼는 작품으로 공동체의 경계와 귀속, 그리고 회복의 문제를 다룬다. 노티지는 『우화』에서 자신이 속한 지역 공동체를 버리고 자신이 열망하는 사회에 속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언딘(Undine)이라는 한 여성을 통해 코스모폴리탄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다. 『우화』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언딘이 홍보회사의 CEO에 오르는 과정에서 자신의 근원적 커뮤니티를 버리고 코스모폴리탄의 중요한 덕목의 하나인 ‘도덕적인 의무’(moral obligations, Nussbaum 157)를 잊고 산 사실을 상기시킨다. 언딘은 흑인들이 선망하는 화이트 컬러군에 입성하는데 성공한 소위 ‘탑걸’(Top Girl)의 지위에 오른 흑인 중산층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러나 극은 상류층에 진입한 언딘이 자신의 공동체를 버리고 이기적 욕망을 추구함으로써 발생하는 도덕성의 문제를 진단한다. 노티지는 언딘이 상류층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만의 노력이 아닌 가족 공동체의 노력으로 이루어 졌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소위 명문대학인 다투머스(Dartmouth)에 입학시키고 학비를 지원하며 계층의 상위로 가는 사다리를 놓아준 사람들은 그녀를 중산층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열망하는 부모들이다. 그들은 딸이 명문대학에 가는 것이 성공을 보장해줄 인맥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고 중산층으로 진입하는데 좋은 토양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딸을 위해 희생한다.

중산층에 진입한 이후 언딘이 보여주는 도덕성의 결핍은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해준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기보다는 사회의 이목에서 숨겨져야 하는 존재로 터부시하는 것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난다. 그녀는 졸업식에 참석한 부모를 회피할 뿐 아니라 CEO로서 성공한 후에는 가족들이 모두 화재로 사망했다는 어이없는 거짓말을 공식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자신의 지역적 공동체와 결별할 뿐 아니라 근원적인 흑인 정체성마저 부정한다. 이 같은 그녀의 의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본명인 샤로나 윌킨스(Sharona Wilkins)를 버리고 언딘 바니스 칼리스(Undine Barnes Calles)로 개명한 사건이다. “샤로나는 언딘을 살리기 위해 화재로 죽어야 했어”(Sharona had to die in a fire in order for Undine to live, 53)라는 변명을 통해 언딘은 개명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희생이자 선택이었다

고 주장한다. 비슷한 경우를 그녀의 친구 엘리슨에게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타메카 조 그린(Tameka Jo Green)으로 개명한 그녀는 영국식 악센트를 구사하면서 자신의 뿌리를 억지로 망각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이는 이들이 선택한 주제적 삶이라는 시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자신들의 지역혈연 공동체와의 단절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도덕적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된다.

1960년대 이후에 나타난 일부 중산계층의 이기적 행동이나 거들먹거림 또는 엘리트의식은 흑인 사회에 분열을 가져오게 된다. 다수의 흑인 하류층이 중산계층에 대해 갖는 부정적 인식은 이들을 “사기꾼”(imposters, Thompson 5)으로 지칭하는 것에서 잘 드러나는데 이는 이들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에 관심을 갖기 보다는 자신의 부와 명예를 쟁취하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비난하는 것이다. 아미리 바라카(Immamun Amiri Baraka)는 1960년대 이후 대학교육을 받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중산층을 일컬어 “흑인 부르주아”(Black Bourgeoisie)로 지칭하며 흑인이면서 정치적/이데올로기적으로는 백인을 지향하는 행동양식을 신랄하게 비난하였다. 언딘과 같이 미국의 시스템이 제공하는 최고의 교육을 받은 흑인들이 중상류층에 진입하면서 보여주는 도덕적 결함은 흑인 사회 내에서 계층간의 불신을 조장하며 공동체의 결속력을 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우화』는 이 같은 공동체의 위기에 대한 노티지의 고민을 반영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극적 고민에서 시작된다.

노티지는 모든 재산을 잃고 집으로 귀향할 수밖에 없게 된 언딘과 그녀의 가족들과의 대립을 통해 흑인 공동체가 지닌 딜레마를 보여준다. 사회와 타협하고 열망의 공동체에 속하는 것을 거부해온 동생 플로(Flow)는 가족을 기억에서 초차 지우고 개명을 한 사실을 지적하며 흑인의 ‘진정성’을 잃어버린 그녀를 공격한다. 노티지는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흑인공동체와 지속적인 유대를 갖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흑인 중산층의 무의식적 딜레마를 지적한다. 언딘이 사회적 지위와 재산을 모두 잃어버린 후 요루바(Yorba)사체를 찾아가는 것은 그녀에게 잠재해 있던 지역 공동체로 회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녀는 요루바 사체로부터 고향인 브룩클린(Brooklyn)으로 갈 것을 계시 받고 이에 응하게 된다. 그

녀의 교육은 ‘망명’(exile)과 ‘회귀’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소위 ‘열망 커뮤니티’로부터 언딘이 망명하는 과정은 비자발적인 것으로 강제성을 띤다. 노티지는 언딘을 ‘재교육’(re-education)시키는 방법을 택함으로써 그녀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곳에 어디인가를 숙고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소 억지스러움과 코믹한 면이 드러나는 극적 방식으로 언딘은 자신이 열망해온 비즈니스공동체를 떠나 지역적 공동체 속에 다시 합류하게 된다.

극의 대부분은 언딘이 열망하는 공동체에서 성취를 이루기 위해 그간 잃어버렸던 혈연적 지역 공동체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 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조화로운 공동체의 이상적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천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언딘은 스토크파의 주장과 같이 “...세계시민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지역적 정체성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to be a citizen of the world one does not need to give up local identification..., Nussbaum 158)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된다. 언딘은 삶의 체험을 통해 제공된 코스모폴리탄 교육을 통해 자신이 잊고 살았던 지역 공동체 속에 자신의 근원적 정체성이 속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고향인 브룩클린으로 돌아온 이후 언딘의 모든 행동은 ‘도덕적/정치적’ 의미를 지니며 귀향을 통해 지향하는 목표는 코스모폴리타니즘의 중요 강령의 하나인 “휴머니티로 이루어진 도덕적 공동체(moral community made up by humanity, Nussbaum 157)의 회복이다. 할머니와 같은 방에서 지내면서 언딘은 자신이 속했던 가족 공동체가 붕괴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할머니가 가족들의 관심으로부터 소외된 채 창문 밖에 있는 건물의 벽돌 숫자를 셀 만큼 무리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심지어 당뇨병과 마약 중독에 까지 이른 그녀의 상태를 가족들이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게 된다. 이 같은 가족 공동체의 위기를 목도한 언딘은 점차 공동체가 처한 위기와 불합리한 사회적 시스템의 여러 상황을 체험하면서 구성원들이 처한 곤경에 대해 깨닫는 일종의 “배움의 과정”(learning process, Kleingeld, *Kant and Cosmopolitanism* 172 재인용)을 거치게 되며 이는 코스모폴리탄적 공동체의 실현과 개인적 도덕성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지역 공동체로 회귀한 후에 언딘이 받게 되는 진정한 재교육은 할머니의 간청으로 “흰색 가루”(white lace)인 마약을 구입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 과정을 통해 사회적/경제적인 취약계층이 불합리한 사회 시스템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 마약을 구입하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여러 계층의 사람들과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재소자, 마약복용자, 사회복지사, 공공 보건소 의사 등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면서 언딘은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삶의 파노라마를 보게 되며 동시에 공동체 곳곳에 숨은 불합리성에 눈을 뜨게 된다. 특히 그녀가 사회복지사나 공공 보건소의 의사와 대립하는 장면들은 공동체의 일원들이 겪어왔던 울분을 해소하는 장면으로 사회적 의미를 지닌 코믹 릴리프(comic relief) 장면이다. 마약복용자 재활프로그램에서 언딘은 따뜻한 인간미를 지닌 가이(Guy)라는 남성을 만나게 되고 계층의 차이를 넘어 그와 새로운 삶을 이루어 갈 것이 암시한다. 망명과 회귀 이전의 언딘이 자신이 속한 지역 공동체를 저버리고 계층의 사다리를 올라가는 열망의 공동체만을 선호했다면 재 교육이후에 그녀는 지역 공동체의 다양한 고통을 헤아릴 줄 아는 성숙한 세계 시민의식과 함께 각기 다른 공동체의 당위적 존속성에 대해서도 인식하게 된다. 노티지가 기획한 세계 시민으로 성숙해 가는 언딘의 재 교육 과정은 서로 다른 기능을 지닌 지역 공동체와 열망 공동체의 차이를 인식시킴과 동시에 두 공동체가 서로 어우러져 조화로운 세계시민 공동체를 이루어 갈 때 성숙한 시민사회를 이루어 갈 수 있다고 제안한다.

『땀』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세계시민 공동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동시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코스모폴리탄 공동체의 이상적 대안을 모색하는 작품이다. 노티지는 이상적인 조화로우며 유지해온 한 공동체가 어떤 방식으로 와해되어 가는지 세밀하게 보여줌으로써 세계화의 어두운 단면을 조명한다. 칸트의 영향을 받은 헤겔은 코스모폴리탄 시민 사회의 관점에서 세계화의 부정적 영향을 예고하며 이는 정치 공동체뿐 아니라 사회/경제공동체마저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예견한 바 있다. 코스모폴리타니즘에 관한 칸트의 철학은 세계화에 대한 헤겔의 식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헤겔은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과 이로 인한 자유무역이 사회적 관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우려한 바 있다. 그는 자유무역의 영향으로 공동체의 가치가 폄하되면서 노동자들이 누려야 할 노동 환경이 무시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였으며 그들이 마주치게 될 실업과 가난을 경고한 바 있다. 헤겔은 신자유주의가 가져올 공동체적 가치의 폄하가 “비인간화와 소외”(dehumanization and alienation), “육체적이고 윤리적인 타락”(physical and ethical degeneration), 그리고 사회전반에 미치는 “효율적인 공적 권위와 타협”(effective public authorities and “Korporationen”)의 결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Stillman 122 재인용).

『땀』은 신자유주의와 공동체간의 상호관계를 통해 헤겔의 경고가 한 세기가 지난 미국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티지는 레드(Reading)시에 위치한 올스테드(Olstead) 철강공장 노동자를 중심으로 코스모폴리탄 시민사회의 이상적 공동체를 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곳의 구성원들이 함께 모이는 술집(bar)은 이 지역이 백인 기득권이 밀집한 동부지역이라는 점을 잊게 하며 성, 인종, 그리고 계층을 초월한 지역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백인여성인 트레이시(Tracey)와 직장동료인 흑인여성 썬시아(Cynthia)가 보여주는 자매애는 이를 설명하는 상징적 관계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이상적인 사회 관습은 신자유주의의 영향이 미치면서 부정적인 징후들과 결합하며 위협받게 된다. 먼저, 술집의 주인인 스탠(Stan)이 겪는 고통은 ‘비인간화와 소외’의 단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공장에서 부상을 당했을 때 겪은 공장경영자들의 비인간적 태도에 대해 언급하는데 이는 인간애를 최우선에 두었던 이전 세대 경영자들과 다른 점이다. 기계가 문제를 일으켜 부상을 당한 후 두 달이나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올스테드의 경영진들 중 어느 누구도 그를 방문해서 안부를 묻지 않았다. 스탠은 다른 대부분의 노동자와 같이 3대에 걸쳐 이곳에서 일해 왔으며 자신도 올스테드에서 일하는 것이 당연한 숙명인 것으로 생각해 왔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경영자들은 인간적 품위가 모든 것의 핵심이란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they don't understand that human decency is at the core of everything, 37)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토로한다. 스탠을 통해 노티지는 공장 운영의 효율화와 이윤 창

출이 최우선인 시장 경제 논리는 노동자층의 소외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스탠. 올스테드에게서 들은 유일한 말은 그들이 보낸 융통성 없는 변호사를 통해서야, 내가 고소를 하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나쁜 놈들. 28년이야. 그때 난 이해한 거야. 그때 알았다고 내가 그들에겐 아무것도 아닌 존재란 걸 말이야. 아무 것도 아닌 사람. 3대가 같은 회사에 충성을 다했지만 말이지.

Stan. The only time I heard from Olstead is when they sent their hard-ass lawyer to the hospital, 'cause they didn't want me to sue. Fucking pricks. Twenty-eight years. That's when I understood. That's when I knew, I was nobody to them. Nobody! Three generations of loyalty to the same company. (36)

극은 공동체 내에서 나타나는 균열의 양상이 윤리적인 타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나프타(NAFTA), 즉 북미무역자유협정³⁾으로 일자리의 위협을 받게 된 트레이시가 보여주는 태도의 변화가 대표적인 예이다. 그녀는 자신이 실직의 위기에 처하게 되자 가장 먼저 지역에서의 기득권을 주장하게 되는데 이는 자신의 조상들이 이 지역을 위해 얼마나 헌신해 왔는지 장황하게 설명하는 부분에서 잘 드러난다. 트레이시는 직장을 잃게 되자 삶 전체가 흔들리는 위기에 처하게 되며 타인에 대한 노골적인 정서적, 육체적 폭력성을 드러낸다. 콜롬비아 출신 오스카를 위협하는 장면과 절친했던 친구인 신씨아(Cynthia)를 헐뜯고 미움과 분노를 표출하는 장면은 그녀의 삶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위협에 처해 있음을 알려준다. 이는 헤겔이 우려한 ‘육체적이고 윤리적인 타락’이 공동체

3) 나프타는 조지 부시 대통령 재임 시 EU에 대항하기 위한 조치로 고안되었으며 미국, 캐나다, 멕시코를 하나의 경제 블록으로 묶어 무역 장벽을 철폐하고 자유무역지대를 설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2년 체결되었다. 이 조약은 보수당인 공화당에 의해 추진되었으나 민주당 클린턴 정권에 의해 인준이 통과되고 발효되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지지해온 친 노조적인 정책 노선에 반하는 결정이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며 세계화의 부정적 영향이 삶속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보여주는 적절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땀』은 시장 경제의 자유화로 인해 노동자들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공적 권위와 타협의 효율성이 결합되어 있는 정치 현상을 지적한다. 최근 『땀』에 대한 연구에서 강형민은 극중 나프타의 발족과 시행의 정치적 의미에 대해 세밀히 고찰한 바 있다. 그는 전통적인 친 노동 및 보호무역 조치 정책을 시행해온 민주당이 대형 노조들의 정치적 지지기반을 포기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나프타를 발효시킨 것은 미국이 여전히 세계 경제 피라미드의 정상에 남기위한 의도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 협정이 결과적으로 미국 자본가와 제조업자들의 이익을 가져왔지만 노동자들에게는 불이익을 가져 왔다고 지적한다. 『땀』은 이러한 면을 부각하며 클린턴 정부 집권시기의 정치적/경제적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클린턴의 집권 시기가 이전 공화당 행정부의 장기 경기침체를 벗어나 미국 경제의 부흥을 가져온 것은 확실하지만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정책들은 궁극적으로 노동자들의 삶의 근간인 일자리를 빼앗아 가거나 일자리의 질을 악화시킬 잠재적 위협”(강형민 12)도 동반한 정책이었음을 상기시킨다.

울스테드의 노동자들이 직면한 인간적인 권리의 가치평하는 이들이 자신들과 연관된 정치적/경제적 상황에 매우 무지한 상태로 방치되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소문에 의해 이웃한 공장들의 폐업위기를 접하지만 이러한 현상들이 자신들의 울스테드에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거나 애써 외면하는 모습은 다소 코믹하게 느껴진다. 울스테드의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삶의 위기를 인식하고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공장을 운영하는 경영자들과 정치인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들은 나프타 협정이 노동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노동자들이 받아들여야 할 결과를 예고해야 했음에도 이에 대해 탐구하는 비도덕적인 태도를 보인다. 자신의 이윤을 지키는데 혈안이 된 기업인들의 비윤리적인 태도는 노동자를 세계시민적 공동체의 일원에서 배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며 이러한 의식은 일부 노동자들에게 까지 확산된다. 해고의 위기에 처한 다른 백인 동료들과는 달리 오히려 매니저급으로 승진을 하

게 된 찌시아는 그간 자매애를 나눠온 트레이시를 비롯한 다른 동료들의 아픔을 공감하기 보다는 자신에게 다가온 기회를 지키는 것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여준다.

신씨야. 19살 때부터 난 늘 똑 같이 그 라인에 서서 일을 해왔어. 위협스런 인종차별 주의자 멍청이들로부터 명령을 받으면서 말이야. 그렇지 만 휴식시간을 기다리며 참고서서 일했지. [. . .] 난 한 가지 직업이상의 것을 포기하려는 거야. 그런 빌어먹을 기회를 잡기위해 평생 기다리며 일해 온 그 시간들을 포기하려는 거라고.

Cynthia. I've stood on that line, same line since I was nineteen. I've taken orders from idiots who were dangerous, or even worse, racist. But I stood on line, patiently waiting for a break. [. . .] I'm giving up more than a job, I'm giving up all that time I spent standing on line waiting for one damn opportunity. (83)

노티지는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고용주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동안 노동자들은 위기에 처하지만 이들을 보호하는 사회적 장치는 결여되어있으며 결국 노동자들이 의존할 수 있는 곳은 노조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헤겔은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며 개인이 스스로를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언급하면서 “가난의 개선”(amelioration of poverty)과 “동반하는 고통”(concomitant distress)을 책임지는 것은 시민 사회여야 하며 사회와 개인은 함께 운명을 나누고 도전해야 하는 유기적 관계망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헤겔은 공동체 내에서 다른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서 책임감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인식이 도덕성과 결부된 시민의 절대적 권리라고 주장한다. 그는 도덕성을 잃어버린 사회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공동체 안에서 터져 나온 한 가지 이슈에 대한 ‘공적인 배려’만이 갈등해결의 주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다(Stillman 125 재인용). 노티지는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기저에 깔린 ‘공유성’(commonality)을 기반으로 재결합이 필요하다고 제시하며 공동체가 견고한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인식 또한 확대되어 사회적

책임과 함께 스스로의 자치권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노티지는 『땀』에서 세계화 시대에 공동체의 정체성을 고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며 세계 시민의 자질과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다. 레딩의 올스테드 노동자들을 통해 민감한 정치적 화두인 성, 인종 그리고 계층을 초월한 공동체의 이상적 모습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경제적/사회적 변화의 위기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요인과 함께 건강한 코스모폴리탄 시민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폐허』에서는 코스모폴리탄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이 민주화와 인권에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국제적 강화에 대한 인식의 저변을 확대하였다. 이와 함께 한 개인의 리더십과 타인에 대한 관용이 공동체를 어떻게 변화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중요한 극적인 예를 제시한다. 『우화』에서는 지역 공동체와 사회적 열망 공동체 사이의 균형과 공존을 모색하며 코스모폴리탄 공동체 사회 속에서 각 개인의 책임을 강조한다. 노티지는 이 작품들을 통해 세계 시민사회와 공동체라는 일관된 화두를 이어가며 코스모폴리탄적 공동체의 당위성과 바람직한 표상을 제시한다. 그녀의 시선은 한 개인이 속한 공동체에서 인류애의 궁극적 범제화와 영역 확보에 맞추어져 있으며 이는 코스모폴리타니즘이 추구하는 초국가적 인류애와 동일한 지향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IV. 코스모폴리탄적 권리(Weltbürgerrecht)⁴⁾와 서벌탄(subaltern):

『속옷』, 『궁녀들』

칸트의 코스모폴리타니즘 정신은 다양성을 포용하며 ‘배제된 것’(exclusion)과

4) 칸트는 그의 저서 『영원한 평화를 향하여』에서 인간이 가져야할 공적 권리에 헌법과 국제적 권리에 더하여 이방인을 향한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내포되어 있는 코스모폴리탄적 권리를 포함하였다. 칸트는 이러한 코스모폴리탄적 권리의 핵심에는 “친절함”의 권리가 반드시 내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것이야말로 올바른 코스모폴리탄적 권리이자 “올바른 세계질서의 기본적 조건”(Kleingeld, *Kantian Review* 2 73 재인용)이라고 언급한다.

서벌탄, 즉 타자에 대한 관심을 강조한다. 이때 타자 및 소수 문화에 대한 관심은 새로운 경제체제의 유입으로 발생한 희생자들이나 국가적 관심이 미치지 못한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들은 디아스포라(diaspora), 이민자, 피난민, 도피자(exiles)들로 지칭되며 이들에 대한 관심은 코스모폴리탄 커뮤니티가 추구해야 하는 이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Waldron 165). 『속옷』과 『궁녀들』은 이 같은 코스모폴리탄적 시각을 마이크로코스미(microcosm)의 렌즈를 통해 보여준다. 『궁녀들』은 초국가적 시각에서 시간과 공간성의 확장성을 적용하며 디아스포라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나타내는 작품이다. 미술 작품을 소재로 역사적 상상력을 가미하여 ‘비체’ 혹은 ‘타자’를 재발견하는 극적 탐색의 과정이 다양성과 혼종성의 극적 스펙트럼을 통해 나타나는 이채로운 작품이다. 이 작품은 관객들로 하여금 규범에 얽매이지 않는 지식을 요구하며 ‘문화 간 번역과정’과 ‘지리-문화적’관점을 통해 타인, 타문화 그리고 타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열린 사고를 보여준다.

『궁녀들』은 예술작품을 매개체로 극적 상상력을 통해 코스모폴리탄적 가치를 전경화 한다. 17세기의 스페인의 화가 디에고 벨라즈케즈(Diego Velázquez)⁵⁾의 작품을 탐색하며 시작되는 노티지의 창의적 극적 구성은 시간과 공간의 스펙트럼을 확장하는 유연성을 통해 ‘역사학’(historiography)⁶⁾에 관한 논의를 유발한다. 벨라즈케즈의 작품 <라스 메니나스>에 대한 기존의 전통적인 해석을 재고하며 극은 범 아프리카적(pan-African) 디아스포라의 위치를 부각하며 결핍과 소외 그리고 욕망의 비극을 다룬다 (Bucker 53). 노티지가 극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재방

5) <라스 메니나스 혹은 필립 4세의 가족>(Las Meninas or The Family of Philip IV)(1656)을 그린 벨라즈케즈는 스페인 국왕인 필립4세의 궁정화가로 활동하였으며 필립 4세는 그에게만 초상화를 그리도록 허락하였다고 전해진다.

6) ‘역사학’이란 정보의 비판적 검증, 정통적 소재에서 가져온 세부사항의 선택, 그리고 비판적 방법론의 검증을 대표할 하나의 내러티브 속에 포함되는 세부사항들의 통합에 근거한 역사 기술로 정의할 수 있다. 시대와 국가에 따라 역사학은 역사가나 지성인들이 국가적 정체성을 입증하기 위해 역사속의 일정 부분을 어떻게 인용하는가에 따라 논란의 여지를 제공해 왔다.

문하는 역사적 시/공간은 <라스 메니나스>외에 <마리-테레사 루이즈의 초상화, 모레의 흑인수녀>(Portrait of Louise -Marie- Therese, the Black Nun of Moret, 1664-1732)이다. 노트지는 <라스 메니나스>에서 아프리카인 디아스포라 나보 센수갈리(Nabo Sensugali)를 발견하고 <마리-테레사 루이즈의 초상화, 모레의 흑인수녀>에서 루이즈(Louise)를 불러온다. 그녀의 해석은 이 작품들에 대한 서구 중심적 편견을 배제할 뿐 아니라 아프리카 중심적 사고(Afrocentric notion)에서도 벗어나 세계시민적 시각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노트지가 이분법적인 시각에 기대어 억압과 저항의 화두에 초점을 맞춘 노예 내러티브의 영향력에 안주하지 않고 좀 더 폭넓은 시각으로 확대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녀가 주목하는 인물은 프랑스왕 루이 14세의 부인인 마리 테레사(Marie-Therese)왕비, 아프리카인 난장이 나보,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루이즈 마리 테레사(Louise Marie-Therese)이다. 노트지는 <라스 메니나스>의 표면적 기표에 감추어진 ‘시각적/미학적 메타포’를 발견하고 기의를 추적하고 상상하고 기록함으로써 서구중심의 편향된 역사기록 방식에 도전한다. 노트지는 역사적 기록에서는 존재 자체가 부정되어져온 루이즈에게 목소리를 부여함으로써 역사를 재조명한다.

루이즈 [. . .] 자 조용히 하세요, 사랑하는 자매님들, 이제 이야기를 다시 들려드릴게요.(자랑스럽게 미소 짓는다) 이 이야기는 매력적인 프랑스 왕비 마리 테레사에 관한 진실입니다.

LOUISE. [. . .] Now quiet, sweet sisters, and I will tell you again. (Smiles gloriously) This is the true story of the seduction of Marie-Therese... the Queen of France. (252)

루이즈의 내레이션(narration)은 그녀가 어떻게 사람들의 공적인 시선에서 사라지고 침묵되어져 왔는지 밝혀내는 역할을 한다. 태어나자마자 “죽은” 것으로 처리된 루이즈는 노트지에 의해 살아나고 극적으로 구현되어 다시 말하기 시작하며 이는 정의가 사라졌던 마이크로적 역사의 재현이다. 그녀가 나보와 마리 테레사 여왕 사이에서 태어났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은 그녀의 증언을 통해 극에서 구

체적으로 드러난다. 이 사건의 배경에 등장하는 두 인물 마리 테레사 왕비와 나보와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 기술은 이들이 성, 인종, 그리고 계층의 측면에서 완전히 이질적인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인물이 서벌탄적 공통분모를 지니고 있음을 깨닫게 한다. 스페인 출신이면서 정치적 정략결혼으로 인해 소외된 삶을 살아온 마리 테레사에게 나보는 웃음을 되찾아주며 무기력한 삶에 활력을 제공한다. 그러나 단돈 염소 여섯 마리 값에 팔려온 나보는 “칠흑 같은 피부를 지닌 흑인”(black like night, 274)이자 “아프리카 난장이”(little African man, 274)외모를 지녔다는 이유로 인간성이 배제된 왕비의 노리개로 혹사당한다. 그는 모멸감과 육체적인 고통으로 인해 그녀를 죽이고 싶은 충동을 느끼며 자신의 신 레그바(Legba)에게 정신적 억압과 육체적인 고통을 호소한다. 루이즈는 신에게 고통을 호소하는 나보의 모습을 지켜보며 “작은방에 갇혀 어둠속에 살아가며 집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까지 어떻게 끌려 왔는지 알지 못하고 서 있는”(In his small room facing the darkness, he stood wondering how he had gotten so far from home, 275) 고통 받는 한 인간의 모습을 본다. 프랑스에서 나보는 단지 ‘프릭’(freak), 즉 인간적 존중을 말살당한 동물과 다름없는 기형적 존재일 뿐 이다. 루이14세는 왕비가 흑인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듣고 나보를 면담하게 된다. 그는 “공식적으로 이 대화는 실재하는 것이 아니다.”(Officially this conversation is not even happening, 322)로 규정하며 대화조차 역사적 기록에서 지워버리려 한다. “왕실 혈통의 복지를 위협한 뚫어질 듯 한 눈빛”(A penetrating look that threatened the welfare of the royal heir(321)을 보였다는 이유로 왕은 나보에게 참수형을 구형하고 그는 목이 짓밟히고 꺾인 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음을 루이즈는 증언한다.

노티지는 극적 상상력을 통해 역사 기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식민주의 이데올로기의 편견과 폭력성을 고발하는 동시에 코스모폴리탄적 시민의식의 부재를 지적한다. 나보의 아이로 추정되는 루이즈는 친모인 테레사 왕비와의 조우에서도 끝내 나보가 자신의 아버지라는 증언을 듣지 못하게 되는데 이는 루이즈 역시 나보와 마찬가지로 역사기록에서 지워진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벨라즈케스로 추정되는 극중 화가는 자신과 나보 그리고 루이즈의 위치가 심리적 노마디즘

(nomadism)의 측면에서 동일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자신도 나보와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인간”(invisible, 279)이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드러난다. 그는 자신이 그린 초상화속 왕족들을 혐오하며 그 증거로 그림 한 구석에 그들을 증오한다는 표시를 남겨 놓았다고 실토했다(280). 그는 “뛰어난 피부”(a remarkable complexion)를 가진 나보가 그림의 훌륭한 모델이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며 그가 왕족들 못지않은 그림 속 “훌륭한 주체”(fine a subject as any of them, 279)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서벌탄의 위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루이즈는 화가로 부터 자신이 나보와 여왕사이에 태어난 사생아라는 것과 자신의 초상화 역시 그의 작품일 것이라는 힌트를 가지게 되며 왕의 정부인 라 발리에레(La Valliere)로부터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자신의 출생했을 당시 왕으로부터 “이 아이는 존재하지 않는다”(This child does not exist as far as I am concerned, 321)는 명령을 받았으며 이후로 자신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야 하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라 발리에레로부터 자신이 테레사 왕비와 나보사이에 태어난 불명예스런 아프리카인이라는 말을 듣고 왕비를 찾아가지만 그녀에게서도 외면당한 루이즈는 충격을 받고 손목을 끊는 자해를 하게 된다. 그러나 루이즈는 자신을 신의 은총을 받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black from head to toe) 성모마리아(the Virgin Mary)로 비유하며 자존감을 되찾게 되고 극의 결말을 리드한다.

노티지는 식민주의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궁녀들』에서 신음하는 타자들을 회복시키고 분쟁하는 지역에 화합을 타진하는 코스모폴리탄적 전략을 시행한다. 극중 인물들의 디아스포라적 삶에 대한 연민과 함께 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세계시민적 권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억압되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며 동시에 이들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작업을 시행한다. 디아스포라의 세계시민적 권리에 관심을 가져온 칸트는 그의 저서에서 “단지 다른 땅에서 왔다는 이유로 적개심으로 취급 받아서는 안 되는 외국인의 권리”(the right of a foreigner not to be treated with hostility because he has arrived on the land of another, Waldron 88 재인용)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이방인에게 원칙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코스모폴리탄적 권리를

주장한다. 칸트는 그의 법 이론에서 모든 인간은 세계시민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자신의 실존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자기 자신의 경영에 따르지 않고 타인의 처분을 강요받게 되는 자는 시민적 인격을 박탈” 당한자라고 지적한다(백종현 515 재인용). 나보는 시민사회가 규정한 기본 시각에서 볼 때 자유롭지 못한 자, 즉 노예와 같이 부자유로운 자로 시민의 자격요건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그가 아프리카에서 프랑스로 강제 이주되었을 때 그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철저히 박탈당한다. 나보에게 가해진 억압은 단순한 인종적 차별이 아니라 “인류에 반하는 범죄”(crime against humanity, Waldron 87)이자 “코스모폴리탄적 권리의 중대한 위반”(grave violation of cosmopolitan right, Kleingeld, *Kant and Cosmopolitanism* 112)이라고 할 수 있다.

칸트는 인간은 인격을 지닌 도덕적 실천이성의 주체이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목적자체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대의 비평가들은 코스모폴리타니즘에 관한 논의에서 “피난민, 디아스포라, 이민자, 그리고 추방자들은 코스모폴리탄 공동체 정신을 대표한다(Refugees, peoples of diaspora, and migrants and exiles represent the spirit of the cosmopolitical community)고 언급한다(Pollock 6). 노티지는 나보와 루이즈의 비극적 삶을 통해 코스모폴리타니즘적 정신과 권리를 역설적으로 제시한다. 또한 코스모폴리탄적 사고의 체계에서 볼 때 기득권을 누리고 산 것처럼 보이는 테레사 왕비 역시 사회에서 배제당한 채 소외된 삶을 산 부자유로운자로 조명한다. 노티지는 극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아 자신의 존엄성을 천명하는 루이즈를 통해 동등성의 바탕 위에서 평가되어야 하는 인간의 권리를 보여준다. 비록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이며 조용히 사라져야 했던 인물이었지만 그녀는 도덕적 실천의 가치를 되돌아보게 하는 극중 인물로 재창조된다. 노티지는 『궁녀들』을 통해 루이스와 나보 그리고 또 다른 희생자라 할 수 있는 마리 테레사 왕비의 목소리를 드러냄으로써 코스모폴리타니즘적 인간관의 가치를 강조한다.

『속옷』은 세계시민 사회를 지향하는 거시적 극적 담론 속에서 한 개인의 공간을 구체화 한다. 『속옷』에 나타난 마이크로코즘의 세계는 사적인 은밀한 공간

으로 소우주 속에 존재하는 인간의 갈등과 딜레마를 전경화한다. 노티지는 사적인 공간 속에서 신음하는 ‘타자’의 고통을 묘사할 뿐 아니라 서벌탄의 억압과 회복을 동시에 보여준다. 작품은 공동체 속의 한 개인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코스모폴리탄적 가치를 증명하며 개인과 공적 의미간의 상호 교차적 관계에 주목한다. 노티지는 서벌탄의 위치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오면서 자신감조차 잃어버리고 공동체에서 소외되어온 여성 에스더(Esther)를 통해 공동체적 가치와 의미를 조명하며 국가, 인종, 성, 그리고 계층의 이데올로기를 초월한 휴머니티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속옷』에서 노티지는 칸트가 주장한 ‘친절함’(Weltbuergerrecht)의 미학을 서벌탄의 주권 회복의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이를 극중 인물들에게 투영한다. 칸트는 ‘친절함’을 코스모폴리탄적 권리에 속하는 중요한 가치이자 실천으로 보았으며 이는 단순한 박애의 의미가 아니라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개인들 간의 관계를 지배하는 규칙이며 보편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의무라고 강조한다(Benhabib 21 재인용). ‘친절함’의 개념은 “단순한 하나의 규준이라기보다는 일련의 규준들을 알려주는 심오한 배경지식”(deep or background idea that informs an array of norms rather than a single norm in its own right, Benhabib 88)을 의미하며 세계시민 사회 속 개인 간의 관계성에 대한 상호 교차적 의미를 규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속옷』은 이러한 친절함의 미학이 공동체 속 한 개인에게 미치는 중요한 영향을 극화한다.

사회와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사는 흑인 여성재단사 에스더에게 호의를 베풀며 다가온 반 뷰렌(Van Burean)의 친절함은 에스더의 삶의 일대 전환점을 만들어 주게 되며 내면의 인간적 욕구와 정체성을 자각하는데 지침이 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반 뷰렌의 도움으로 에스더는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소통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 에스더와 조지(Geroge)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편지를 대필해주는 반 뷰렌의 호의는 하나의 인격체를 향한 인류애 적 사랑의 실천으로 해석하기에 충분하다. 그녀는 자신의 옷을 만들어 주는 흑인 여성 재단사인 에스더를 인종과 계층적인 하층민으로 터부시 할 수 있었으나 그녀를 하나의 인

격체로 받아들이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이들은 각자의 삶의 아픔을 나누고 공감하고 소통하는데 까지 이르게 된다. 이들이 공유하는 ‘친절함’의 법칙은 로맨티시즘으로 전이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코스모폴리타니즘적 가치의 실천적 장이 된다. 『속옷』에 나타나는 로맨티시즘의 특성은 이데올로기의 해체, 여성간의 돌봄, 그리고 이성애적 결합 등으로 나타난다. 에스더와 반 뷰렌의 관계는 인종과 계층의 이데올로기를 뛰어넘는 여성간의 상호 돌봄으로 발전하며 에스더가 이성애적 러브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예기치 못한 반 뷰렌의 레즈비언적 구애장면은 두 여성의 관계에 위기를 가져오지만 에스더가 유대인 옷감 상인 마크(Mark)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허락한다. 에스더는 종교적, 인종적, 성적 차이를 과감히 극복하고 마크에게 자신을 표현하게 되는데 이 장면은 하나의 인격적 주체이자 시민사회의 주체로서 에스더의 변화된 모습을 상징한다. 『속옷』을 비롯해 노티지의 다른 작품에서도 나타나는 ‘친절함’의 미학은 로맨틱한 감성적 효과와 결합하여 스토리텔링, 노래, 그리고 춤과 같은 극적 장치를 통해 나타난다. 『폐허』는 심각한 정치적인 갈등과 폭력이 난무하는 극적 배경 속에서도 유머와 위트를 잃지 않으며 로맨티시즘적 화합으로 극의 결말을 이끌어 간다. 이 같은 극적 구도가 극이 지닌 정치적 의미의 심각성을 반감시킨다는 일부 학자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노티지는 생명력이 내재된 로맨티시즘과 친절함의 미학을 반영하여 화해와 희망의 화두를 추구하고자 한다. 코스모폴리타니즘적 철학과 실천에 기반을 둔 친절함의 미학을 통해 서벌탄의 주권회복의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은 연극이 침묵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 목소리를 부여할 수 있다는 극적 기능을 공표하는 것이기도 하다.

V. 결론

노티지의 극은 코스모폴리타니즘 이론에 대해 제기되어온 비판을 상쇄하는 대안적 실천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코스모폴리타니즘 이론이 주창

하는 인간애와 인류를 향한 과제를 실현하기에는 개념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고 실질적으로 목표에 도달하기 힘든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코스모폴리타니즘의 이상은 이론으로만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러한 점에서 노티지가 구현하는 극적 전경화를 통한 이론의 실천은 이상의 대안적 실천이며 타자를 향한 인간의 본능적 연민의 실현이며 칸트가 제시한 “도덕적 의무”(moral duty, Kleingeld, *Kant and Cosmopolitanism* 167 재인용)의 실천으로 볼 수 있다. 노티지는 본고에서 제시한 작품들을 포함한 활발한 극작을 통해 서로 다른 인종, 문화 그리고 민족에 대한 관심과 존중을 촉구하는 개방적 태도를 보여줌으로서 국제기구와 인권단체 그리고 미디어의 관심을 받았으며 이는 구체적인 정치적 실천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본고에서 논의한 노티지의 극은 세계 시민으로서 한 인간의 주권을 중시하며 지역, 국가, 인종, 성, 계층의 장벽을 초월한 인류애를 드러낸다. ‘우리’(we) 의식을 바탕으로 한 그녀의 극작 세계는 다인종주의, 다문화주의, 포스트 인종주의의 담론을 넘어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기하는 것이며 인류애적 화합을 모색하는 시도라 평가할 수 있다. 이 같은 노티지의 극적 미학은 국지적 장소를 초월하여 전 지구적 ‘인식’, ‘수용’ 그리고 ‘다양성’을 지향하며 인류에 대한 관심과 인간적 권리를 회복하는 것에 궁극적 지향점을 두고 진정한 “인간에 대한 사랑, 감성적 유대감, 아름다움, 상호간의 신뢰, 믿음”(truly human love, emotional bonds, beauty, shared material trust, faith)이라는 가치를 구축한다(Kleingeld, *Kant and Cosmopolitanism* 151).

노티지의 극작 전체를 아우르는 코스모폴리타니즘 철학과 이에 근거한 각 작품에 대한 논의는 그녀의 극 세계가 매크로코즘과 마이크로코즘이 교차하는 극적 영토의 확장을 통해 이데올로기를 초월하는 다양성, 유연성, 관용의 정신을 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칸트가 주창한 코스모폴리탄 글로벌 커뮤니티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며 타인을 “인식하고, 존경하며, 열린 마음으로 박애정신(beneficence)을 행하는 인간에 대한 지식의 확대와 실천”(Kleingeld, *Kant and Cosmopolitanism* 1)으로 평가할 수 있다. ‘타자’, ‘인류애’, ‘화합’, 그리고 ‘미래’라는 공통적 화두와 함께 각 작품마다 차별화된 시각으로 적용되는 코스모폴

리타니즘 미학은 노티지 극의 무한한 잠재력을 기대하게 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브로드웨이에 진입하여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을 뿐 아니라 학계 및 정치계의 관심을 동시에 받고 있는 노티지는 흑인/여성 연극이 추구해온 극적 지향점의 한계를 초월하고 코스모폴리탄적 가치의 실천가능성과 함께 21세기 미국 연극이 나아갈 방향성과 대안을 제시한다.

주제어 미국 흑인여성 극작가, 린 노티지, 코스모폴리타니즘, 『폐허』, 『땀』, 『속옷』, 『우화』, 『궁녀들』

인용 문헌

- Alexander, Jeffrey C. *The Meaning of Social Life: A Cultural Sociology*. New York: Oxford UP, 2004. Print.
- BenHabib, Seyla. “The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Cosmopolitan Norms”, *Another Cosmopolitanism*. London: Oxford UP. 2004. 13-44. Print.
- Bohman, James. “The Public Spheres of the World Citizen,” in *Perpetual Peace: Essays on Kant’s Cosmopolitan Ideal*, Ed.by James Bohman and Matthias Lutz-Bachmann, Boston: MIT, 1997. Print.
- Brown, Garrett Wallace. “Kant’s Cosmopolitanism” *The Cosmopolitanism Reader*. Ed. by Garrett Wallace Brown and David Held. Malden: Polity, 2017. 45-60. Print.
- Buchwalter, Andrew. “Hegel and Global Justice: An Introduction” *Hegel and Global Justice*. Ed. by Andrew Buchwalter, New York: Springer, 2013. 1-20. Print.
- Buckner Jocelyn L. “Diasporic desire in Las Meninas” *A Critical Companion to*

Lynn Nottage. Ed. by Jocelyn L. Buckner, New York: Routledge. 2016. 52-69. Print.

Cheah, Pheng, and Bruce Robbins (eds.). *Cosmopolitics: Thinking and Feeling Beyond the Nation*, Minneapolis: U of Minnesota P, 1998. Print.

Choi, Seokhun, "Exposing the Falsehood of War and Violence: Power of the Abject in Lynn Nottage's *Ruined*."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60.2 (2014): 365-89. Print.

[최석훈. 「비체를 통해 드러난 전쟁과 폭력의 허구-린 노티지의 『망가진 여인들』에 나타난 비체의 힘」, 『영어영문학』 60.2 (2014): 365-89.]

Choi, Sunghye. "Feminist Appropriation of Globalization: Cosmofeminism in Lynn Nottage's *Ruined*" *Feminist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 22.2 (2014): 297-326. Print.

[최성희. 「세계화의 여성주의적 전유: 린 노티지의 『폐허』에 나타난 코스모페미니즘 연구」, 『영미문학 페미니즘』 22.2 (2014): 297-326.]

Chun, Yonhee. "Dramatic Transformation of Afro-American Music in Suzan-Lori Parks' Plays: *The America Play*, *Venus* and *Topdog/Underdog*." *The Journal of Modern English Drama* 27.3 (2014): 303-43. Print.

[전연희. 「수잔 로리 파크스의 극에 나타난 미국 흑인음악의 극적변용: *The America Play*, *Venus* 그리고 *Topdog/Underdog*를 중심으로」, 『현대영미드라마』 27.3 (2014): 303-43.]

---. "History Matters: Digging a Hole in Suzan-Lori Parks' *Venus*", *Studies on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33.1 (2007): 43-64. Print.

[---a. 「History Matters: Digging a Hole in Suzan-Lori Parks' *Venus*」, 『영어영문학 연구』 33.1 (2007):43-64.]

---. "Lynn Nottage's *Intimate Apparel*." *The Journal of Modern English Drama* 29.3 (2016): 123-44. Print.

- [--b. 「린 노트지의 *Intimate Apparel*」, 『현대영미드라마』 29.3 (2016): 123-144.]
- . “Playing Lincoln Simulacra: Performativity in Suzan-Lori Parks’ *The America Play*.” *American Studies* 36.2 (2013): 1-32. Print.
- [--c. 「링컨 신화의 재조명: 수잔 로리 팩스의 극 『미국연극』에 나타난 수 형성」, 『미국학』 36.2 (2013): 1-32.]
- . “‘Post’ Black Aesthetics-Black Top Girl in Lynn Nottage’s *Fabulation or The Re-education of Undine*.” *Sungshin Humanities Research* 34 (2016): 39-64. Print.
- [--d. 「‘포스트’ 흑인 미학-린 노트지의 『우화』에 나타난 최고의 흑인여성」, 『인문과학연구』 34 (2016):39-64.]
- . “Post Race Logic in Suzan-Lori Parks’ *Topdog/Underdog*” *The Journal of Modern English Drama* 22.1(2009): 109-37. Print.
- [--e. 「수잔 로리 팩스의 극*Topdog/Underdog*에 나타난 탈 인종적 논리」, 『현대 영미드라마』22.1 (2009): 109-37.]
- . “Territory, Gender, and Body Politics: Lynn Nottage’s *Ruined*.” *The Journal of Modern English Drama* 26.1(2013): 179-206. Print.
- [--f. 「영토, 젠더(gender) 그리고 몸의 정치학: 린 노트지의 *Ruined*」, 『현대 영미드라마』 26.1 (2013): 179-206.]
- Derrida, Jaques. *On Cosmopolitanism and Forgiveness*. Trans. Mark Dooley and Michael Hughes, New York: Routledge, 2001. Print.
- Hamalian, Leo. & James V. Hatch: *The Root of African American Drama: An Anthology of Early Plays*. Wayne State UP. 1991. Print.
- Hollinger, David A. *Postethnic America: Beyond Multiculturalism*. New York: Basic, 2000. Print.
- Johnson E. Patrick: *Appropriating Blackness: Performance and the Politics of Authenticity*. Duke UP. 2003. Print.

- Kang, Hyungmin. “The Crisis of Labor and Collapse of American Values in Neoliberal Capitalism in Lynn Nottage’s *Sweat*.” *The Journal of Modern English Drama* 32.1 (2019): 5-34. Print.
- [강형민. 「린 노트지의 *Sweat*에 나타난 신자유주의 자본주의하의 노동의 위기 및 미국적 가치의 붕괴」, 『현대영미드라마』 32.1 (2019):5-34.]
- Kant, Emmanuel. *The Metaphysics of Morals*, Rrans. and Ed. by Mary Gregor, Cambridge, Cambridge UP, 1996. Print.
- Kleingeld, Pauline. “Kant’s Cosmopolitan Law: World Citizenship for a Global Order,” *Kantian Review* 2 (1998): 72-90. Print.
- . *Kant and Cosmopolitanism*. London: Cambridge UP, 2013. Print.
- Kolin, Philip C: *Contemporary African American Women Playwrights*, Routledge, 2007. Print.
- Lee, Soeuk. *Velazquez*. Seoul: Seomundang. 2007. Print
- [이수억. 『벨라스케스』. 서울: 서문당. 2007.]
- Levine, Lawrence W. *Black Culture and Black Consciousness*. New York: Oxford UP, 2007. Print.
- McDowell, Linda and Joanne P Sharp. *Space, Gender, Knowledge*. New York: Arnold, 1997. Print.
- Mohler, Courtney Elkin, Christina McMahon, and David Roman. “Three Readings of Reading, Pennsylvania: Approaching Lynn Nottage’s *Sweat* and Douglas Carter Beane’s Shows for Days.” *Theatre Journal* 68 (2016):79-94. Print.
- Nottage, Lynn. *Fabulation or, the Re-education or Undine*. New York: Dramatists Play Service, 2005. Print.
- . *Intimate Apparel*. New York: Dramatists Play Service. Inc., 2005. Print.
- . “*Las Meninas*.” *Crumbs from the Table of Joy and Other Plays*. New York: Theatre Communication Group, 2003. 250-324. Print.

- . *Ruined*. New York: Theatre Communication Group, 2009. Print.
- . *Sweat*, New York: Theatre Communication Group, 2017. Print.
- Nussbaum, Martha C. "Kant and Cosmopolitanism." *The Cosmopolitanism Reader*. Ed.by Garrett Wallace Brown and David Held. Malden: Polity, 2017. 27-45. Print.
- . "Patriotism and Cosmopolitanism" *The Cosmopolitanism Reader*. Ed.by Garrett Wallace Brown and David Held. Malden: Polity, 2017. 155-62. Print.
- Olstead, Riley. "Gender, Space and Fear: A Study of Women's Edgework." *Emotion, Space and Society* 4 (2011): 86-94. Print.
- Phillip, Brian. "Testimony in Transmission: Victim and Witness Narrative in Contemporary Drama." *Journal of Human Rights Practice* 2 (2010): 271-86. Print.
- Pollock, Sheldon, Homi K. Bhabha, Carol A. Breckenridge, and Dipesh Chakrabarty(Eds.). "Cosmopolitanisms" *Cosmopolitanism*. Durham & London: Duke UP. 1-14. Print.
- Ridout, Nicholas. *Theatre & Ethic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9. Print.
- Stillman, Peter G. "Hegel, Civil Society, and Globalization." *Hegel and Global Justice*. Ed.by Andrew Buchwalter. New York: Springer, 2013. 111-29. Print.
- Suzanne L. Stratton-Pruitt, *Velazquez's Las Meninas*. New York: Cambridge UP. 2003. Print
- Tompson.Lisa B. *Beyond the Black Lady: Sexuality and the New African American Middle Class*.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 2009. Print.
- Tuck, Richard. *The Rights of War and Peace: Political Thought and International Order from Grotius to Kant*, Cambridge: Cambridge UP,

1999. Print.

United Nations.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 Web.

<<https://www.un.org/en/universal-declaration-human-rights/index.html>>

Waldron, Jeremy. "Cosmopolitan Norms" in *Another Cosmopolitanism*. London: Oxford UP.2004. 83-101. Print.

---. "Minority Culture and the Cosmopolitical Alternative," in *The Rights of Minority Cultures*, Ed. by Will Kymlicka. Oxford: Oxford UP, 1995. Print.

---. "What is Cosmopolitanism?" *The Journal of Political Philosophy* 8.2 (2000): 227-43. Print.

Philosophy of Cosmopolitanism in the Plays of Lynn Nottage:
Intimate Apparel, Las Meninas, Fabulation, Ruined, and Sweat

Abstract

Chun, Yon-hee (Sungshin Univ.)

This paper aims at exploring the philosophy of cosmopolitanism in the five representative plays of Lynn Nottage, *Intimate Apparel, Las Meninas, Fabulation, Ruined, and Sweat*. The discussion on the philosophy of cosmopolitanism in these plays reveals “we” consciousness which includes diversity, flexibility, and generosity beyond region, national boundary, race, class and leads expansion of theatrical territory intersected with macrocosm and microcosm. In *Ruined* which exposes cosmopolitan ethics and world citizenship Nottage suggests the direction of community and practice of the original announcement of “I am the world citizen.” In *Fabulation* and *Sweat*, Nottage shows the justified attribute of ‘Gemeinschaft’ of cosmopolitan society. Finally, *Intimate Apparel* and *Las Meninas* indicate the recovery of the subjection of subaltern and Weltburgerrecht. This is an attempt to pursue the reconciliation of humanity indicating the crisis of “we” consciousness and practice Kant’s idea of cosmopolitan global community which includes recognition, respect, open-mindedness, beneficence to the ‘others’ sharing humanitarian perspectives as a world citizen. The aesthetics of cosmopolitanism which applied in specific dramatic methodology in each play along with the common issues including ‘otherness’, ‘humanity’, ‘reconciliation’, and practicability of the cosmopolitan ideals anticipates Nottage’s infinite potential power as a playwright. Thus, Nottage’s theatrical works which have gotten attention from theatrical territory as well as politics for these reasons suggest the alternatives and direction of 21st American Theatre.

Key Words African-American female playwright, Lynn Nottage, cosmopolitanism, *Ruined*, *Sweat*, *Intimate Apparel*, *Fabulation*, *Las Meninas*

Note on Contributor:

Yon-hee Chun is Associate Professor at Sungshin Women's University.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post-Black aesthetics and cosmopolitanism in modern and contemporary American drama.

E-mail: yhchun812@hotmail.com

논문투고일: 2019년 7월 14일

논문심사일: 2019년 7월 26일 ~ 8월 9일

게재확정일: 2019년 8월 19일